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정 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성의 회복을 위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정 연 희

신성의 회복을 위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정 정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정 연 희

인 준 서

정연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본인 작업 중 석사청구전에 전시되었던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수록한 것이다. 본인은 자연에 깃든 신성과 기독교적 상징이 작품을 통해 초월적 이미지로 구현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작품으로 구현된 초월적 이미지들이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을 통해 재현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본인은 자연과 마주할 때, 자연에 깃든 신성을 느낀다. 이 신성은 본인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기독교적 상징과 연결된다. 그리고 본인은 작품 속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와 돌을 자연에 깃든 신성의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인은 작품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자연과 기독교적 상징에 깃든 신성을 포착하고 연결하여 본인과 신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을 혼성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본인 작품 속에서 사용되는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은 자연과 분리되어 신성을 잃어버린 연민의 대상이다. 본인은 자연과 분리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을 혼성시켜 초월적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써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이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하고자 시도한다. 신성 안에서 자연과 인공물 그리고 본인에게 보이지 않지만 신성의 회복을 위한 시도로 구현된 초월적 이미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본 논문은 2019년 석사청구전에 출품한 작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에 관한 연구 방향과 목적을 서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작품 형성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 고찰들과 작품표현 형식에 대해 서술하였다. 첫째, 신성이 깃든 자연과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에 대해 서술하였다. 둘째, 신성이 깃든 자연 이미지의 재현,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을 통한 작품표현방법을 서술하였다. 셋

제, 본인 작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작품과 내용을 정리하고 작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 서론	1
II . 본론	3
1. 작품 형성 배경	3
1) 신성이 깃든 자연	3
2)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	9
3)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	14
2. 작품 표현 방법	18
1) 신성이 깃든 자연 이미지의 재현	18
2)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	20
3. 작품 분석	23
III . 결론	53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버드나무 축복	
220×300×10(cm), 가변설치, Flexible PLA, 2019.	23
【작품2】 동일한 개나리와 버드나무	
110×300×110(cm), 가변설치, 고무줄, 2017.	26
【작품3】 I'm Groot(나무가 되어 보자)	
200×35×24(cm), 가변설치, 나뭇가지, PLA, 2019.	29
【작품4】 나 무엇?!	
45×35×30(cm), 가변설치, 나무, PLA, 2019.	32
【작품5】 그와의 만남 그리고 대화	
145×195×135(cm), 가변설치, 나뭇가지, Flow PLA, 2019.	34
【작품6】 불을 켜세요.	
95×140×50(cm), 가변설치, 초, 나뭇가지, 화분, 돌, 2019.	38
【작품7】 하프의 숨	
33×52.5×7(cm), 자작나무합판, PLA, 2019.	41
【작품8】 나뭇가지 시리즈 가. 나무(無):접(接)	
200×2210×220(cm), 가변설치, 나무젓가락, 고무줄, 나무, 2017.	44

【작품9】 나뭇가지 시리즈 나. 틈에서 자라난 나무

225×22×195(cm), 가변설치, 나뭇가지, 나무젓가락, 고무줄, 글루건, 낚시줄, 2017.

나뭇가지 시리즈 다. 틈에서 자라난 버드나무

60×75×50(cm), 가변설치, 나뭇가지, 나무젓가락, 고무줄, 글루건, 낚시줄, 2017. 47

【작품10】 String and string string

330×160×300(cm), 가변설치, 시멘트벽돌, 나뭇가지, 돌, 나무판, 2019. 50

도 판 목 록

- 【도판1】 정 학교, <송무석수>, 1907, 비단에 담채, 30.0x41.5cm,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37453&cid=42924&categoryId=42924>, (2019년 05월 25일 검색).
- 【도판2】 장-피에르 생투르, <지진>, 1806, 캔버스에 유채, 142x185cm,
출처: 진중권, 『앙겔루스 노부스』, 경기도:(주)아트북스, 2013, p,207.
- 【도판3】 존 마틴, <신의 분노의 날>, 1853년경 캔버스에 유채, 198x308cm,
출처: 테이트 갤러리, 런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anclub200&logNo=12005491827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2019년 05월 25일 검색).
- 【도판4】 양혜규, <여성형 원주민>, 2010, 가변설치, 출처: <http://www.heikejung.de/FemaleNative.html>, (2019년 05월 25일 검색).

I. 서 론

버드나무나 바위 같은 자연물은 옛적부터 강인한 생명력과 신성이 깃든 자연으로 여겨져 왔다. 자연에 깃든 신성은 동양회화에서 십장생(十長生)처럼 생명력과 신성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왔다. 또한 서양의 낭만주의회화에서는 숲과 바위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풍경을 통해 자연에 깃든 신성함을 표현한다. 그리고 성경에서 신을 비유하는 나무, 돌과 같은 기독교적 상징들 역시 신성을 상징한다. 이처럼 자연과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는 신성을 향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연과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는 무한한 자연이 파스칼을 경탄하게 만들었듯이 본인을 초월적인 신성 앞으로 안내한다. 신성에 대한 관심은 신성과 단절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감정은 본인의 작품 속에서 인공적인 재료로 자연 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드러난다.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을 통해 초월적 이미지를 구현한다.

본인은 본론에서 첫째, 신성이 깃든 자연과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나무와 돌과 같은 자연물을 연관지어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경 속 포도나무, 가지, 수금(하프)과 같이 비유적으로 등장하는 기독교적 상징들을 살펴보고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들이 본인의 작품에 적용되는 근거를 서술할 것이다. 더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나뭇가지, 벽돌, 양초, 고무줄, 3D필라멘트(PLA) 등의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앞선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버드나무의 줄기와 분재 그리고 나무 형태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신성이 깃든 자연 이미지의 재현을 설명하고,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을 매달고 접합하고 묶어서 혼성하는 방식들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작품들의 개별적 분석을 통하여 본인의 작품 속에서 자연과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가 모두 신성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을 통해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발전시킬 본인의 작업 방향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II.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1) 신성이 깃든 자연

메를로 폰티(Merleau Ponty, M)는 자연의 일부를 포착하려고(그리려고) 시도¹⁾한 세잔(Cezanne, P)의 회화에 대하여 세잔이 구현하려는 자연은 '일차적인(원초적인) 세계'²⁾라고 설명했다. 본인 역시 자연에서 원초적인, 인식 이전의 세계³⁾를 포착한다. 메를로 폰티의 '인식 이전의 세계'는 본인에게 무한한 신의 세계이다. 본인은 무한한 자연이 주는 경외감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보게 된다. 이것은 파스칼(Pascal, B)의 "인간이란 자연 속에서 무엇인가. 무한에 비하면 허무, 허무에 비하면 전체, 허무와 전체 사이에 걸려 있는 중간자이다."⁴⁾라는 언급과 같이 자연의 무한함과 마주한 인간의 경탄이다. 이처럼 자연은 유한한 인간인 본인 안에 위대한 모든 것, 우리보다 신적인 모든 것을 향한 억제할 수 없는 사랑⁵⁾을 심어 놓았다. 본인은 이와 같은 끌림으로, 자연 안에 나무와 돌에서 신성을 포착하고 재현한다.

본인이 포착한 자연물은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생명이 있는 자연물들은 신성한 존재,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⁶⁾이고, 생

1) 주성호, 「세잔의 회화와 메를로-폰티의 철학」, 『철학사상』, Vol.57, p,267-299,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5, p,272.

2) 주성호, 「세잔의 회화와 메를로-폰티의 철학」, 『철학사상』, Vol.57, p,267-299,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5, p,273.

3) 주성호, 「세잔의 회화와 메를로-폰티의 철학」, 『철학사상』, Vol.57, p,267-299,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5, p,273.

4) 파스칼, 『팡세 Pensées』, 이환 옮김, 서울:민음사, 2003, p,206.

5) 진중권, 『앙겔루스 노부스』, 경기도:(주)아트북스, 2013, p,208, 하단'통기뉴스'인용.

6) 진중권, 『앙겔루스 노부스』, 경기도:(주)아트북스, 2013, p,205.

명이 없는 돌과 같은 자연물 역시 자연의 확고하고 변함없는 부동성⁷⁾을 보여주는 자연물이다. 본인이 자연에서 주목하는 주된 자연물은 나무이다. 진 쿠퍼(J, C, Cooper)⁸⁾에 의하면 나무는 현현(顯現) 세계의 전체, 하늘과 땅과 물의 총체, 돌의 정적인 생명에 반대되는 동적인 생명을 상징한다.⁹⁾ 이와 같이 ‘세계의 전체’를 상징하는 나무의 생명력에서 본인은 신성을 포착한다.

본인에게 신성을 느끼게 해주는 대표적 나무는 버드나무다. 버드나무는 본인의 고향인 천안의 시목이며, 민요 <천안삼거리>¹⁰⁾에서 천안삼거리의 풍경을 묘사하는 나무로 등장할 만큼 본인에게 익숙한 자연이다. 본인은 고향의 향수를 담은 버드나무에서 강인한 생명력과 신성을 발견하였다.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에서 버드나무는 북반구의 아한대에서 난대 혹은 아열대까지 분포하며, 그 종은 모두 400종 가까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만도 40종류가 넘는다고 한다. 버드나무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백제 무왕 35년(634년)에 “궁궐의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 리나 물을 끌어 사방의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었다.”¹¹⁾는 것이다. 버드나무는 옛부터 우리나라에 번식하였고 지금은 우리 주위에서 익숙하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버드나무는 메마른 곳이나 비옥한 물가 어디서나 뿌리내리고 쉽게 잘 자라는 식물적인 특성을 따라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의 상징¹²⁾으로 사용되었다.

月到千虧餘本質 달은 천 번을 이즈러져도 그 본질이 남아있고

7) 파스칼, 『팡세 Pensées』, 이환 옮김, 서울:민음사, 2003, p,211.

8) 진 쿠퍼(J, C, Cooper),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옮김, 서울:(주)까치글방, 1994,

9) 정남희, 김갑숙, 「신화와 종교적 관점에서의 집-나무-사람 상징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미술치료학회, p,1069~1087, 2010, p,1076 .

1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예술사전』, 서울:국립민속박물관, 2015-2016, 3,음악<천안삼거리>.

11)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서울:(주)도서출판 넥서스, 2004, p,550-551.

12)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서울:(주)도서출판 넥서스, 2004, p,554.

柳經百別又新枝 버들은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올라온다.¹³⁾

조선 중기 문신 상촌 신흠(申欽)은 버드나무를 꺾여도 다시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자연물로 묘사하고 있다. 더하여 민간에서는 버드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인해 버드나무를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힘을 가진 자연물로 여겼다고 한다.¹⁴⁾ 이처럼 버드나무를 신성한 힘을 가진 성물(聖物)로 여기는 것은 불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불교에서의 버들가지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상징하고, 중병(衆病)을 제거해주는 자비를 상징한다¹⁵⁾고 한다. 불교 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로마의 포도 농사꾼들 역시, 포도나무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아울러 버드나무의 생명력이 포도나무로 옮겨져서 풍부한 포도송이를 맺었으면 하는 바램의 상징으로 포도밭에 버드나무를 심었다고 한다.¹⁶⁾ 이와 같이 버드나무는 예부터 동·서양을 아울러 강한 생명력과 신성함을 상징해 왔다.

상징성을 갖는 나무에 대해 더 살펴보자면, 불사 혹은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들을 볼 수 있다. 물푸레나무¹⁷⁾는 북유럽 신화에서 생명의 샘, 영원한 생명과 불사를 상징한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나무에 불사의 의미를 연결 짓는 것은 우리나라의 십장생(十長生)¹⁸⁾에서도 볼 수 있다. 사대부 출신 서화가 정학교(丁學敎)의 그림 <송무석수> 【도판1】에서 십장생의 소나무는 장수의 상징으로 그려졌다. <송무석수>는 우측에는 노송을, 좌측에는 구멍이 있는 태호석을 배치하였고, 하단에는 대나무를 곁들였는데, 그야말로 장

13) 상촌 신흠(1566~1628), 『상촌집(象村集)』,〈야언(野言)〉, 권47~48, 1633.

14)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서울:(주)도서출판 넥서스, 2004, p.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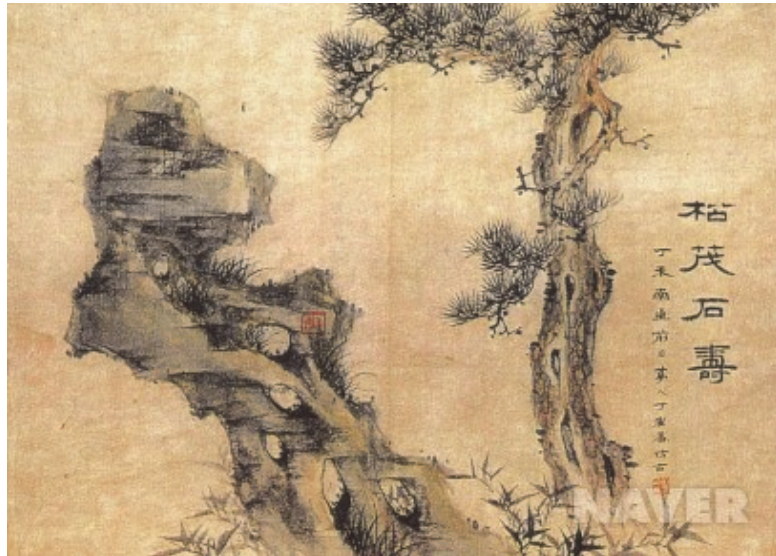
15)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서울:(주)도서출판 넥서스, 2004, p.560.

16) 최대형, 『성서 속의 상징 193』, 서울:도서출판 은성, 1991, p.173.

17) 정남희, 김갑숙, 「신화와 종교적 관점에서의 집-나무-사람 상징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미술치료학회, p.1069~1087, 2010, p.1076.

18) 십장생(十長生)은 불로장생을 의미하는 해, 산, 물, 소나무, 달 또는 구름,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을 말하는데 대나무가 포함되기도 한다. 중국의 신선 사상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두산백과』, (출처: <http://www.doopedia.co.kr> 검색).

수를 기원하는 축수(祝壽)의 목적에서 제작된 그림¹⁹⁾이다. 소나무는 장생의 상징물로 서민과 사대부에게 모두 애호²⁰⁾되었다고 한다.



【도판1】 정학교, <송무석수>, 1907

동적인 생명력을 가진 나무와 반대로 살아있지는 않지만 정적인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돌 역시 십장생의 하나로 신성한 상징성을 가진 자연의 일부이다. 그림 <송무석수>에서도 돌은 소나무와 함께 장생의 상징으로 그려졌다. 또한 민속신앙에서 돌은 확고한 부동적 특성으로 인해 선바위(禪岩)와 같이 신격화된 돌²¹⁾로 신성시 되어왔다. 기독교의 성경에서도 돌은 신성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²²⁾라는 구절을 살펴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성육신한 예

19) 이원복, 『한국 미의 재발견-회화』, 서울:술, 2005.

20)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서울:(주)도서출판 넥서스, 2004.

21) 박현희, 『조선시대 괴석도(怪石圖)에 나타난 ‘돌(石)’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조형교육학회, 조형교육 제 58호, p.69-98, 2016, p.27.

수를 상징한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기성세력이라 할 수 있는 사회지도층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예수는 결국 이스라엘의 사회지도층에게 미움을 받고 죽게 된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린 돌’, 쓸모없는 돌로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여 죽음을 이김으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돌은 성육신 예수를 상징한다.

나무, 돌 뿐만 아니라 바람, 구름, 흙 또한 마찬가지로 신성이 깃든 자연이다. 본인은 나무, 돌과 같은 개별적인 자연물을 통해 신성을 포착한다. 그리고 본인은 “우리는 조그만 시냇물을 보며 경탄하지 않는다. ... 우리가 진정으로 경탄하는 것은 나일 강, 도나우 강, 라인 강, 나아가 대양이다.”²³⁾라는 롱기누스(Longinos, C)처럼 자연 전체가 드러내는 위대함과 마주할 때 더 큰 경탄으로 신의 무한함 앞에 서게 된다.



【도판2】 장-피에르 생투르, <지진>, 1806

22) 『개혁개정성경』, 서울:(주)아가페출판사, 2008, <사도행전> 4장 11절.
 23) 진중권, 『앙겔루스 노부스』, 경기도:(주)아트북스, 2013, p.200-201.



【도판3】 존 마틴, <신의 분노의 날>, 1853년경

자연 전체에 깃든 위대한 신성은 낭만주의시대의 회화를 통해 볼 수 있다. 진중권이 <앙겔루스 노부스>에서 낭만주의자의 작품에 대하여 “합리주의가 생명체까지 죽은 사물로 만든다면, 낭만주의자들은 죽은 무기물까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만든다.”²⁴⁾라고 정리한 것처럼, 낭만주의자들은 <지진> 【도판2】, <신의 분노의 날> 【도판3】과 같이 자연을 개별적 유기물이나 무기물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신성으로 표현하였다. 다시 말해, 자연의 풍경 전체를 통하여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지진>, <신의 분노의 날>에서의 자연은 개별적 자연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드러내는 자연 세계인 하나의 거대한 풍경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자연에 깃들인 신성의 위대함에 대한 표현이다.

본인은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개별적 자연물과 자연 세계 전체에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낭만주의 회화처럼, 자연은 거대한 생명체로써 그 모든 풍경들이 신성을 상징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성경 속,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연을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24) 진중권, 『앙겔루스 노부스』, 경기도:(주)아트북스, 2013, p.204.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자연)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²⁵⁾라고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2)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

본인이 신성이 깃든 자연을 재현함으로써 작품에 신성을 덧입혔다면,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의 재현은 초월적 세계와의 연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신성이 깃든 자연에 이어서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적 상징을 언급하기에 앞서 기독교와 본인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²⁶⁾에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라고 설명한다. 본인은 기독교인 어머니 밑에서 모태 신앙에 기독교인으로 성장했고, 본인에게 기독교의 “하나님”²⁷⁾은 보이지 않지만 본인과 연결된 존재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²⁸⁾라고 설명한다. 본인에게 신은 마치 믿음, 공기, 사랑, 시간처럼 보이지 않지만 “being sure”²⁹⁾ 실제로 있는 것이다.

기독교를 더 자세히 말하자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가 타락한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러낸 특별계시³⁰⁾인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는다.

25) 『개혁개정성경』, 서울:주아가페출판사, 2008, 〈로마서〉 1장 20절.

26) 『표준국어대사전』, 〈기독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2019.05.16. 검색)).

27) 『개혁개정성경』, 서울:주아가페출판사, 2008, 〈창세기〉 1장 1절.

28) 『개혁개정성경』, 서울:주아가페출판사, 2008, 〈히브리서〉 11장 1절.

29) 『NIV BIBLE』, 서울:주아가페출판사, 2008, 〈Hebrews히브리서〉 11:1,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

30) 대니얼 하이드,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찬영 옮김, 서울:부흥과개혁사,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특별히 성육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이야기한다. 이 약속은 신의 영감을 받은 제사장, 선지자, 사도 등을 통해 기록되었다. 성경은 신의 영감 안에서 수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된 계시의 기록이다. 성경의 상징들은 독립적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통일된 세계관³¹⁾ 안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성경은 신과 인간 혹은 상황과 감정 등을 설명할 때 비유와 상징을 즐겨 사용한다. 본장에서는 나무와 들로 표현된 상징 이미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본인은 성경 안에 포도나무, 버드나무, 종려나무와 떨기나무에 대한 비유와 상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³²⁾

나무는 성경에서 다양한 상징 이미지로 등장한다. 위의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자신과 자신을 믿는 자들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한 내용이다. 이 비유에서 사용된 ‘포도나무’는 성육신한 예수를 상징하고 ‘가지’는 인간을 상징한다. 이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듯이 인간이 성육신한 예수와 붙어있을 때 살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을 함의한다. 반면에 예수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즉,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나무는 생명을 맺을 수 있는 근원인 예수, 즉 신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본인의 작업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버드나무는 성경에서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로 등장한다.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과 나뭇가지

p.81, 특별계시인 성경에서 발견되는 네 가지 주요 주제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다.

31) 황창기, 『성경적_상징주의의_해석원칙』, 『진리와 학문의 세계』, 31 October 2001, Vol.5, p.7-12.

32) 『개혁개정성경』, 서울:(주)아가페출판사, 2008, <요한복음> 15장 5절.

이야기에서 ‘버드나무’³³⁾는 생육과 연결된다. 성경에서 야곱³⁴⁾은 버드나무 가지와 다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양떼의 새끼 배는 장소에 가져다 두었다. 그 결과 야곱은 튼튼한 양들을 얻었고 그 소유가 많아 졌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통해 버드나무가 강한 생명력과 번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사야>³⁵⁾ 44장에서 역시 ‘버들’³⁶⁾은 신이 주는 번성에 상징으로 등장한다. 44장에 ‘시냇가의 버들’, 물가에 심겨져 왕성하게 번식하는 버드나무는 신의 약속과 같은 축복인 이스라엘의 성장과 번영에 결부³⁷⁾된 자연물이다. 야곱의 버드나무와 같이, <이사야>의 버드나무는 번영이라는 신의 축복이 깃든 상징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생명력과 신성한 상징성으로 인해 이교도 숭배와 음행의 장소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가 기록한 <호세아>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교도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 없는 약속을 기록한 책이다. <호세아> 4장³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를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는 장소 중 하나가 ‘버드나무 아래’이다. 버드나

33)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흥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 튼튼한 양이 새끼 뱄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하고 ...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개혁개정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8, <창세기> 30장 37,38,42,43절.

34) 야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손자이다.

35) 성경의 <이사야>는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기록되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절 예언 사역을 하였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 구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선지서이다. (존 맥아더, 『맥아더 성경 주석』, 황영철·전의우·김지년·송동민 옮김, 서울: 협동조합 아바서원, 2016.)

36)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개혁개정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8, <이사야> 44장 3-4절.

37) 최대형, 『성서 속의 상징 193』, 서울: 도서출판은성, 1991, p.173.

38)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개혁개정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8, <호세아>, 4장 13절.

무는 번성의 상징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는 신성한 자연물인 동시에 그 신성함으로 인해 이교도 숭배의 장소로 등장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영광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레위기>³⁹⁾에 기록된 ‘종려나무’는 풍요와 영광의 상징이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무성하게 서식하였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생명의 나무’로 불릴 만큼 풍부한 영양과 좋은 맛을 가진 열매를 맺었고 고대인들을 먹여 살린 양식⁴⁰⁾이었다고 한다. 또한 ‘종려나무’는 가지가 곧고 수려하고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영광과 기쁨, 승리의 상징⁴¹⁾으로 사용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보고자하는 상징적 나무는 ‘떨기나무’⁴²⁾이다. <출애굽기>⁴³⁾에서 ‘떨기나무’는 이집트 왕자로 알려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상황 안에 등장한다. 여기서 ‘떨기나무’는 불꽃은 피어오르지만 타지 않는 초월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떨기나무’는 ‘여호와’ 하나님, 신의 임재의 상징이다. ‘떨기나무’와 같은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들은 기독교 신자들의 일상 위에 겹쳐진다. 만약 기독교 신자가 불타는 나무를 본다면 신의 임재의 상징인 ‘떨기나무’를 상상하게 된다. 신자는 불타는 나무에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인 불꽃이 피어오르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겹쳐봄으로 모세가 경험했던 신의 임재를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인 다양한 나무들과 더불어 돌 역시 성경

39)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개혁개정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8, <레위기>, 23장 40절.

40) 강판권, 『세상을 바꾼 나무』, (생명의 나무, 대추야자), 서울: 도서출판다른, 2011.

41)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4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개혁개정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8, <출애굽기>, 3장 2절.

43) “<출애굽기>는 야곱의 후손들이 보여준 급속한 성장을 애굽 탈출에서 시작해 약속의 땅에서 신정국가를 세우는 데까지 추적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존 맥아더, 『맥아더 성경주석』, 황영철·전의우·김지년·송동민 옮김, 서울: 협동조합 아바서원, 2016.

속에서 다양한 상징 이미지로 등장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름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⁴⁴⁾

위 구절이 기록된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신에게 자신과 함께하는 표징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국에 젖은 채로 ‘바위’ 위에 올려진 예물에 불을 붙이는 이적을 보이므로 신이 기드온과 함께 함을 보인다. 그리고 기드온이 신의 임재를 보았던 바위는 ‘제단’이 된다. 이처럼 바위, 제단은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고 신은 화답하는, 신과 초월적으로 연결된 사물이다. 돌 제단은 신의 권능과 편재(遍在)함, 즉, 신의 전능과 무소부재(無所不在)함이 깃든 상징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힘의 근원으로 비유되는 큰 돌, ‘반석’⁴⁵⁾은 ‘목자의 손’을 상징하며 이것은 이스라엘에 복을 주는 ‘전능자’의 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돌은 본래 자연 상태 그대로 혹은 제단과 같이 가공된 형태로 신성이 깃든 상징이다.

파스칼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정신을 열었다.”⁴⁶⁾고 말한다. 그리고 성경의 상징(표징)들은 기독교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계시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상징(표징)은 “부재와 현존, 유쾌함과 불쾌함을 지니고 있다. 이중의 의미를 가진 부호. 명백한 것과 그 안에 의미가

44) 『개혁개정성경』, 서울:(주)아가페출판사, 2008, <사사기> 6장 21,24절.

45)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개혁개정성경』, 서울:(주)아가페출판사, 2008, <창세기> 49장 42-43(상반)절.

46) 파스칼, 『팡세 Pensées』. 이환 옮김, 서울:민음사, 2003, p.252.

숨겨져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⁴⁷⁾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성경의 상징들이 부재와 현존, 즉, 없는 것과 있는 것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가졌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본인은 파스칼의 설명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상징들을 통해 부재하지만 현존하는 기독교 세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신이 존재하는 초월적인 기독교 세계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자연 속에 신성으로 깃들어 있음을 포착하였다. 자연과 동일하게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들은 본인 안에 신적인 모든 것, 신성을 발견하게 한다. 신성이 깃든 자연과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들은 본인의 작품에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의 결합을 통해 초월적 이미지로 구현된다. 그리고 신성이 깃든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에 신성을 회복하고자 시도하게 한다.

3) 자연적 오브제와 인공물

본인은 신성이 깃든 자연과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를 재현하고,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을 혼성시켜 초월적 이미지로 구현한다. 본인이 혼성시키는 것들은 나뭇가지, 나무토막, 고무줄, 자연석, 벽돌, 양초, 3D필라멘트(PLA) 등이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은 나뭇가지, 나무토막, 자연석 같은 자연 오브제와 고무줄, 벽돌, 양초, 3D필라멘트(PLA) 등의 인공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자연 오브제는 자연을 이루는 자연물에서 분리된 것들이다. 또한 인공물은 나무젓가락, 고무줄, 양초와 같이 본래 자연의 일부였지만 인간에 의해 가공된 것들이다. 인공물은 인간의 필요에 맞춰 자연물을

47) 파스칼, 『팡세 Pensées』. 이환 옮김, 서울:민음사, 2003, p.259.

가공한 것으로 헤겔(Hegel, G, W, F)의 언급을 빌리자면, 이것은 “인간화된 자연, 자연의 탈자연화”⁴⁸⁾이다. 인공물은 인간에 의해 가공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본질을 잃어버렸다. 시릴 모라나(Cyril Morana)와 에릭 우댕(Eric Oudin)은 과학에 대한 메틀로 폰티의 설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과학에 의해 재구성되고 대상이 되어버린 세계의 실제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고 보이지 않으며, 우리는 세계의 ‘살’, 그 본질 자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상을 기술로 변형시키는 과학의 거침없는 태도는 우리가 감각을 그냥 지나치게 만든다.”⁴⁹⁾

본인은 여기서 신성을 잃어버린 인공물을 발견한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변천한 인공물은 인간의 삶에 많은 부분을 효율적으로 대체하였지만 변천한 인공물을 마주하는 인간은 인공물에서 자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세계의 ‘살’, 그 본질 자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탈자연화’된 인공물은 본래 자연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본인은 끊어진 고무줄, 타들어간 초와 마주할 때 본질을 잃어버린 인공물의 죽음을 본다. 본인은 본질을 잃어버린 인공물을 볼 때 연민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자연과 분리되어 생명력을 상실한 자연 오브제와 마주할 때 역시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낀다. 꺾인 나뭇가지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신성과의 단절로부터 발생한 감정으로 여겨진다. 신성과 단절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에서 느끼는 연민은 신성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

시릴 모라나, 에릭 우댕은 “하이데거(Heidegger, M)는 현대 기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절대 명백하지 않고 언제나 신비하고 어렵פות한 원초적 존재를 인공적이고 분명하고 뚜렷한 존재로 대체하려는 과정을 고발해야 한

48) 진중권, 『양겔투스 노부스』, 경기도:(주)아트북스, 2013, p.243.

49) 시릴 모라나, 에릭 우댕, 『예술철학 플라톤에서 틀뢰즈까지』, 한의정 옮김, 서울:미술문화, 2013, p.235.

다”⁵⁰⁾라고 정리하였다. 본인에게 인공물은 단순히 신비하고 원초적인 자연물을 대신하는 대체물이 아니다. 본인의 작업에서 인공물은 자연 오브제와 혼성되면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오브제가 된다. 또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은 신성이 깃든 자연과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로 재현될 때 원초적인 존재인 잃어버린 신성을 표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을 혼성함으로써 신성을 표현한 작품은 양혜규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도판4】 양혜규, <여성형 원주민>, 2010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양혜규의 작품 <여성형 원주민> 【도판 4】에 대한 작품 설명에 따르면, 양혜규는 일상적 경험과 기억을 재해석하고 “예술적 경험으로 치환”⁵¹⁾한다고 한다. 또한 양혜규의 <광원 조각 시리즈>는 일상 사물을 가지고 인격체 그리고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사회를 은

50) 시릴 모라나, 에릭 우맹, 『예술철학 플라톤에서 들뢰즈까지』, 한의정 옮김, 서울:미술문화, 2013, p.235.

51)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양혜규, <여성형 원주민>, 2010, 작품설명, (<http://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Detail.do?wrkMngNo=SC-06720>).

유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본인 또한, 양혜규의 작품에서 자연적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을 통해 원초적인 존재, 인격체가 표현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여성형 원주민>에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 빛의 혼성은 인격체의 신성을 느끼게 한다. 양혜규의 작품이 일상적 경험을 예술 작품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본인은 신성이 깃든 이미지를 작품으로 구현한다.

본인의 작품 <하프의 숨> 【작품7】은 <시편>⁵²⁾에 수록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⁵³⁾”라는 구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성경에서 수금(하프)은 찬양과 기쁨의 상징⁵⁴⁾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버드나무에 걸려버린 수금(하프)’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나무에 걸린 수금(하프)은 찬양이 없는 슬픔과 절망의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이 연주하는 수금(하프)은 기쁨의 상징인 반면에 나무에 걸려 연주되지 않는 수금(하프)은 슬픔의 상징이 된다. 본인은 <하프의 숨>을 통해 나무에 걸려 슬픔의 상징이 된 하프를 신이 응답하는 제단 위에 올려 두어 다시금 신을 향한 기쁨이 깃든 신성이 회복되기를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다른 작품들에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을 혼성하여 신성이 깃든 자연 이미지를 재현하고 초월적 이미지로 만들어 강조하려는 것으로 시도된다. 본인이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초월적 이미지는 하이데거가 언급했던, 현대 기술이 만든 인공적인 것들이 원초적인 것을 대체하는 현상에 대한 고발일 것이다.

본인은 앞의 연구들을 통하여 자연과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가 모두 신성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은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임을 정리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앞선 이론적

52) “<시편>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찬양들(Praises)이라고 부른다.”, 존 맥아더, 『맥아더 성경 주석』, 황영철·전의우·김진선·송동민 옮김, 서울:협동조합 아바서원, 2016.

53) 『개혁개정성경』, 서울:(주)아가페출판사, 2008, <시편>, 137편 2절.

54) 『개혁개정성경』, 서울:(주)아가페출판사, 2008, <시편>, 98편 5절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이다’, 147편 7절, 149편 9절, 150편 3절 등.

근거들이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작품표현방법

1) 신성이 깃든 자연 이미지의 재현

앞서 신성이 깃든 자연과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 그리고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위에 언급한 내용이 본인의 작품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인은 먼저, 신성이 깃든 자연 이미지와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를 재현한다. 자연은 자연 세계 전체가 신성을 드러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육신한 예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독교적 상징들은 대부분 신성을 상징한다. 정리하자면, 자연과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는 신성을 향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있다. 이번 장에서는 신성이 깃든 자연 이미지를 재현한 본인의 작품들을 줄기로 표현된 형식과 분재, 그리고 나무로 표현된 형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버드나무 축복> 【작품1】, <버드나무와 동일한 개나리> 【작품2】, <나뭇가지 시리즈 다. 틈에서 자라난 버드나무> 【작품9】는 버드나무의 줄기와 잎, 개나리의 이미지를 재현한 것이다. 본인은 버드나무의 줄기와 잎의 축 처진 상태에서 생명력과 유연함의 매력을 느낀다. 축 늘어지고 탄성이 있는 버드나무 가지 형태를 고무줄 그리고 플렉시블 필라멘트(PLA)와 같이 유연하고 탄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또한, 늘어져 흔들리는 잎사귀를 표현하기 위해 잎사귀의 형태를 선으로 단순화하였다. 버드나무 줄기와 잎사귀를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함으로써 버드나무의 무성한 생명력과 자연물

이 가지는 유연함을 표현하였다. 실제 버드나무와 개나리의 줄기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위에서 아래로 축 늘어지듯이, 작품을 천장과 나뭇가지에 매달아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설치하여 실제 줄기의 느낌을 재현하였다. 그러나 작품의 설치 형태에 있어서 <버드나무 축복>은 관객들이 줄기 사이를 통과하여 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발처럼 줄기들을 수평으로 매달아 늘어뜨려 설치하였다. 그리고 반투명한 형광 필라멘트(PLA)로 만든 줄기와 안에 조명을 비추어 실제 버드나무 잎과 줄기가 햇빛에 빛나듯이 설치하였고 인공적으로 약한 바람을 만들어 실제 바람에 버드나무 줄기가 흔들리듯이 살짝 흔들리게 하였다. 그리고 <버드나무와 동일한 개나리>는 고무줄로 만든 줄기들을 원형으로 설치하였고 줄기 안쪽 천정에 조명을 설치하여 원형 안에 빛이 쏟아지도록 하였다. 늘어진 고무줄 줄기가 독립적인 원형 공간을 만들도록 설치함으로 관객들이 마치 빛나는 버드나무 줄기에 둘러싸이는 느낌을 받도록 설치하였다. <나뭇가지 시리즈 다. 틈에서 자라난 버드나무>의 경우는 나뭇가지에 고무줄 줄기를 불규칙적으로 매달아 자연물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규칙하면서 자연스러운 모습과 감성을 표현하였다. 본인은 관객들이 버드나무 잎 사이를 거릴 거나, 원형으로 설치된 노란 고무줄 줄기에 둘러싸이는 다양한 설치 방식을 사용함으로 관객들이 작품을 통해 자연의 신성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불을 켜세요.> 【작품6】, <나뭇가지 시리즈 가. 나무(無):접(接)> 【작품8】은 분재형식으로 신성이 깃든 자연 이미지를 재현하였다. <나뭇가지 시리즈 가. 나무(無):접(接)>는 자연물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화분에 심겨진 분재처럼 밑 등이 되는 통나무 중심에 구멍을 뚫고 얇은 나무 기둥을 분재하듯 박았다. 그리고 나무 기둥에 나뭇가지와 나무젓가락을 고무줄로 묶어 만든 혼성된 나뭇가지를 기둥에 연결하여 풍성한 나무의 형태를 만들었다. 자연과 분리된 오브제인 통나무에서 나뭇가지 그리고 나무젓가락을 점차적

으로 연결하여 통나무에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이 혼성된 나무가 자라나는 초월적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I'm Groot(나무가 되어보자)> 【작품3】, <나뭇가지 시리즈 나. 틈에서 자라난 나무>는 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I'm Groot(나무가 되어보자)>에서 나뭇가지의 형태를 재현하는 방식은 나뭇가지와 나무젓가락, 고무줄을 사용하여 나무를 재현하던 초기 방식이 아닌 3D펜을 사용하여 나무 형태를 더욱 자연스럽게 재현하였다. 특별히 <I'm Groot(나무가 되어보자)>는 나뭇가지와 사람의 팔이 결합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여 관객이 직접 작품과 연결되어 나무의 형태를 재현하는 적극적 재현 형식을 시도하였다. 본인은 위와 같은 형식 안에서 자연과 분리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을 사용하여 신성이 깃든 자연인 나무의 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신성과의 분리를 초월하여 신성을 회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자연적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

신성이 깃든 자연 이미지의 재현을 다음으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본인은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혼성 방식을 감싸기와 접합하기, 묶어주기로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감싸기 방식으로 혼성한 <그와의 만남 그리고 대화> 【작품5】는 나뭇가지 전체에 야광 필라멘트(PLA)를 3D펜으로 감싸주어 제작하였다. 작은 나뭇가지에서 기둥이 되는 큰 나뭇가지까지 촘촘히 감싸주어 자연 오브제인 나뭇가지의 형태를 강화시켜주었다. 그리고 작품을 공중에 매달아 서있는 나무 형태로 재현하여 관객과 정면으로 마주하거나 관객에게 둘러싸이도록 설치하였다. 또한 어둠에서 야광 특유의 초록빛으로 발광하는 야광 필라멘트(PLA)의 인공적 특성으로 인해 작품의 형태가 강화된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나는 야광 빛의 효과를 통하여 작품의 형태뿐만 아니라 나뭇가지가 자연에서 분리되면서 상실한 신성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이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으로 본인이 회복하고 싶어 하는 신성이 강조되게 하였다.

접합하기 방식은 <불을 켜세요.>와 <나 무엇?!> 【작품4】에서 선명하게 보여 진다. <불을 켜세요.>에서 흙과 돌을 채운 화분에 자연에서 분리된 나뭇가지를 심어 접합하였고 잘려진 나뭇가지 윗부분에 다양한 양초를 접합하여 인공물이 혼성된 가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혼성된 나무양초가지에 꽃과 잎이 아닌 불꽃이 켜지면서 초월적인 나뭇가지 이미지를 만든다. 이것은 가공된 인공물의 새로운 물성이 신성과 단절된 자연물과 결합하면서 서로의 상태를 강조하게 된다. 또한 등잔대와 유사한 형태의 나뭇가지에 촛불이 어둠을 밝힘으로 등잔불이라는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의 성스러운 느낌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였다. <나 무엇?!>에서도 통나무 중심에 3D펜으로 만들어준 다양한 나뭇잎을 혼성함으로써 통나무라는 자연 오브제와 인공적 잎사귀가 연결되어 초월적인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String and string string> 【작품10】, <나뭇가지 시리즈 가, 나, 다>에서는 묶어주기 방식이 두드러진다. <String and string string>은 자연 오브제의 속성과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인공물과 혼성하였다. 자연 오브제인 나뭇가지 끝에 인공물인 고무줄을 묶고 다른 끝은 자연석과 벽돌, 합판에 묶어 매달아 긴장감 있는 관계로 만들었다.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은 각각 별개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풍경 속 사물들은 고무줄과 연결된 벽돌, 합판 등의 무게감으로 서로의 속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휘어져 있다. 작품에서 나뭇가지와 고무줄, 벽돌, 돌 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혼성되어 있다. 이것은 마치 자연 속에서 자연물과 인공물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자연임을 보여준다. 본인은 무한

한 자연 안에 혼성되어 있는 자연과 인공물들의 보이지 않는 관계들을 드러내 초월적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나뭇가지 시리즈 가, 나, 다>는 나뭇가지와 나무젓가락 그리고 고무줄을 혼성하였다. 고무줄로 자연 오브제인 나뭇가지와 인공물인 나무젓가락을 서로 묶어주어 혼성시켰다. 이러한 묶어주는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에게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풍경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이미지로 구현되었다.

3. 작품 분석



【작품1】 버드나무 축복

【작품1】 버드나무 축복

연도 : 2019

크기 : 220×300×10(cm), 가변설치

재료 : 플렉시블(Flexible) 필라멘트(PLA)

제작방법

1. 3D펜에 플렉시블 필라멘트를 넣는다.
2. 3D펜으로 3~4가지 모양의 버드나무 잎을 그린다.
3. 2번을 반복하여 55~70개 버드나무 잎을 만든다.
4. 3D펜으로 300(cm)의 줄기를 만들고 3번에서 만든 잎을 이어 달아 놓는다.
5. 300(cm)의 잎이 달린 줄기를 반복하여 만든다.
6. 아크릴 봉에 일정한 간격으로 버드나무 줄기를 달아 놓는다.
7. 전시 공간 천정에 줄기가 달린 아크릴 봉을 설치한다.

작품설명

어린 시절을 천안에서 보낸 본인에게 천안의 시목인 버드나무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다. 본인은 버드나무의 줄기와 잎의 축 처진 형태에서 생명력과 유연함의 매력을 느낀다. 특유의 정서를 품어내며 흔들리는 버드나무, 물가에 심겨진 버드나무에서 무한한 생명력을 발견한다. 버드나무는 예부터 생명력과 신성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번성과 신성을 상징한다. 축 늘어지고 탄성이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유연한 플렉시

블 필라멘트 사용하여 제작한다. 또한, 늘어져 흔들리는 잎사귀를 표현하기 위해 선으로 잎사귀의 형태를 단순화시켜주었다. 버드나무 줄기와 잎사귀를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함으로 버드나무의 무성한 생명력과 자연이 가지는 곡선의 유연함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천장에 매달아 설치하는 방식으로 실제 버드나무 줄기의 느낌을 재현하였다. 석사청구전에서 본 작품을 지나야 다른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전시장 앞쪽에 문발처럼 설치하였다.



【작품2】 동일한 개나리와 버드나무

【작품2】 동일한 개나리와 버드나무

연도 : 2017

크기 : 110×300×110(cm), 가변설치

재료 : 고무줄

제작방법

1. 이어진 고무줄을 잘라 일자로 만든다.
2. 두 개의 잘린 고무줄의 끝과 끝을 묶는다.
3. 묶어서 연결시킨 고무줄에 반복해서 다른 고무줄을 묶어서 연결한다.
4. 3번을 반복하여 300(cm)길이의 고무줄을 60개 가량 만든다.
5. 고무줄 줄기를 일정한 간격을 주어 원 형태로 천정에 설치한다.
6. 천정에 원형으로 설치된 고무줄 줄기 안쪽 천정에 빛이 땅으로 떨어지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작품설명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본인에게 개나리는 봄에 피는 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개나리는 병충해와 추위에 잘 견디고 종자, 휘묻이, 꺾꽂이로 번식이 가능한 번식력이 좋은 식물이다.⁵⁵⁾ 이 엄청난 번식력으로 담장을 가득 메웠던 개나리는 본인에게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해 주었던 자연물이었으며, 동시에 담장에 매달려 벌들과 함께 개나리 꿀을 빨아 먹던 유년기의 정취를 담고 있는 자연물이다. 개나리 울타리에서 발견했던 생명의 신성함을

55) 『두산백과』, 〈개나리〉, (출처: <http://www.doopedia.co.kr> 2019.05.16. 검색).

청계천과 성북천이 만나는 지점에 심겨있는 버드나무 줄기의 흔들거림에서 동일하게 느끼게 되었다. 본인은 다른 두 식물, 두 자연물을 통해 유사한 신성함을 경험한 이유에 대해 고민하였고, 그 신성함을 다시 재현하고자 하였다. 두 자연물에서 경험한 신성함에 대한 고찰을 통해 모든 신성함은 하나의 신성을 향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작업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동일한 신성이었고 개나리의 색감과 버드나무의 형태를 결합하여 고무줄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3】 I'm Groot(나무가 되어 보자)

【작품3】 I'm Groot(나무가 되어 보자)

연도 : 2019

크기 : 200×35×24(cm)

재료 : 나뭇가지, 나무 필라멘트(PLA)

제작방법

1. 3D펜으로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원통을 만든다.
2. 3D펜으로 원통에 이어서 양손에 끼울 수 있는 나뭇가지 형태를 만든다.
3. 풍선을 사람 두상 크기로 불어 놓는다.
4. 3D펜으로 풍선 위에 반구를 만들어 풍선과 분리시킨다.
5. 4번에 실제 나뭇가지를 조합하여 반구 위에 작은 나뭇가지 형태를 만든다.
6. 전시 공간에 관람객이 나뭇가지 팔과 모자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변 설치한다.

작품설명

관객이 작품을 직접 착용하고 나무의 형태를 재현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다. 나무를 통해 느낀 신성을 향한 동경을 나무의 형태를 재현하고 몸으로 직접 나무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의 작업에 비유적 모티브가 되는 마블의 캐릭터 그루트(Groot)는 살아있는 나무이다. 그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나뭇가지를 생성하기도 하며 잎을 피우기도 한다. 게다가 몸의 거의 모든 부분이 사라져도 꺾꽂이를 통해 다시 성장한

다. 본인은 그루트(Groot)의 유일무의한 유행어 “I’m Groot!”, ‘나는 나무야!’라는 외침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나무, 즉, 자연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본인이 자연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것과 겹쳐볼 수 있다. 그루트(Groot)가 “나는 나무야!”를 외치듯 본인의 작품들은 신성과 연결되면서 “나는 살아있어!”라고 외치고 있다. 본인은 본 작품을 나무 필라멘트(PLA)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인간이 가공하여 만든 나무 필라멘트로 나무의 형태를 재현함으로 인공물에서 지워진 신성을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였다.



【작품4】 나 무엇?!

【작품4】 나 무엇?!

연도 : 2019

크기 : 45×35×30(cm), 가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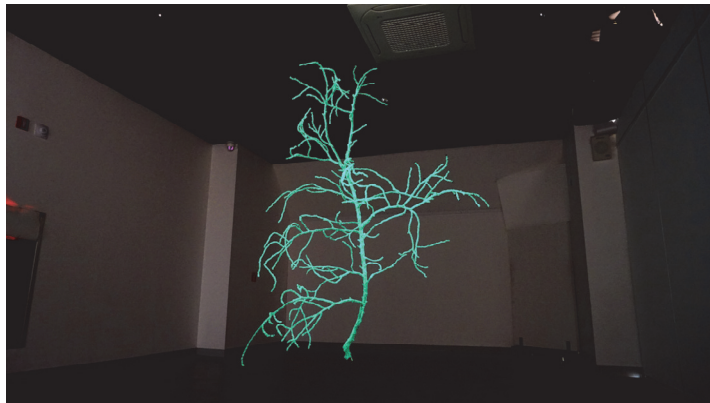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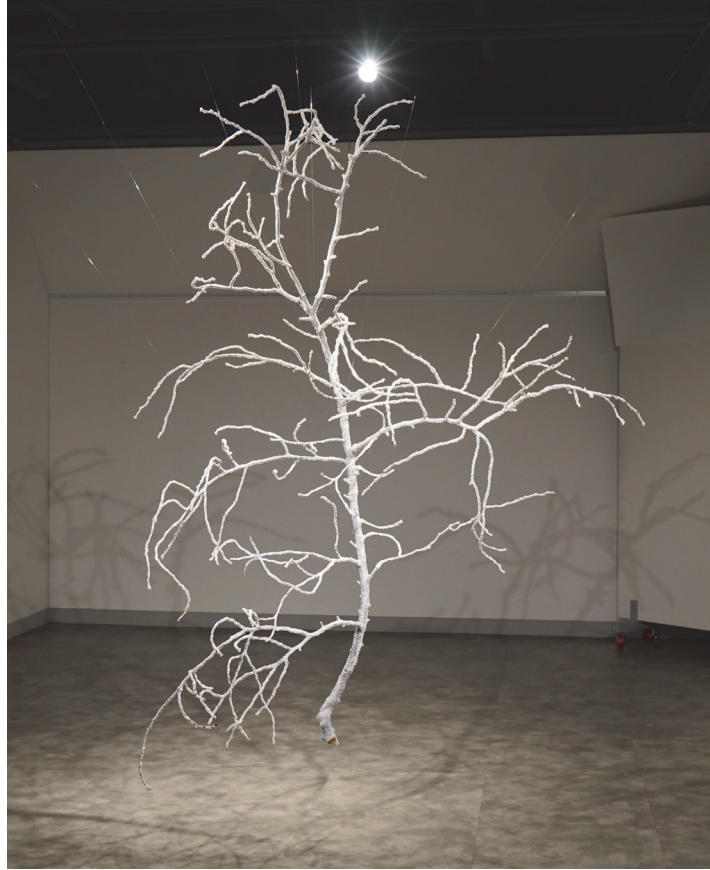
재료 : 나무, 필라멘트(PLA)

제작방법

1. 나무 기둥 중간에 구멍을 뚫는다.
2. 3D펜으로 다양한 모양의 나뭇잎을 만든다.
3. 나무 기둥의 중간 구멍에 2번에서 만든 나뭇잎들을 고정한다.

작품설명

나무 기둥 중심에 3D펜으로 제작한 여러 종류의 자연 잎사귀 모형을 자라나듯 결합시켜 주었다. 이것은 자연에서 단절되고 가공된 인공물이 자연 오브제에 혼성되는 것이다. 또한 인공물이 본래 거대한 생명체인 신성이 깃든 자연에서 나왔음을 드러낸다. 신성이 깃든 자연에 붙어있을 때 생명이 유지되는 자연적 섭리와 인간이 신성과 연결될 때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기독교적 섭리를 작품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5】 그와의 만남 그리고 대화



【작품5】 그와의 만남 그리고 대화

【작품5】 그와의 만남 그리고 대화

연도 : 2019

크기 : 145×195×135(cm)

재료 : 나뭇가지, 야광(Flow) 필라멘트(PLA), 조명장치

제작방법

1. 작품이 될 나뭇가지를 발견한다.
2. 3D펜으로 나뭇가지 전체에 야광 필라멘트를 감싸준다.
3. 야광 필라멘트를 감아준 나뭇가지에 투명 냅시줄을 묶어 전시 공간 천정에 매달아 준다.
4. 조명이 켜짐과 꺼짐을 반복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한다.

작품설명

도로변에서 주워온 본인의 몸집보다 큰 나뭇가지는 꽤 오랜 시간 작업실에 방치 되었다. 형태의 끝림에서 충동적으로 주워온 것인지, 무엇 때문에 큰 나뭇가지를 주워왔는지 깨닫기를 기다렸다. 본인은 큰 나뭇가지에 3D펜으로 야광 필라멘트를 감싸기 시작했다. 얇고 작은 가지를 시작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뭇가지 전체를 둘러쌌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나뭇가지의 형태를 관찰하며 나뭇가지가 어떤 과정으로 성장했을 지를 유추하기도 하였다. 처음 나뭇가지를 발견했을 때 보았던 것 보다 잔가지들이 훨씬 많게 느껴졌다. 중심이 되는 나뭇가지 기둥에서 다른 나뭇가지들이 자라고 다시 더 작은 나뭇가지들이 가지를 뻗친다. 창문만 열어도 나무는 많고 다양한 나뭇가지가

있다. 그러나 본인이 충동적 끌림에 의해 주워온 이 나뭇가지는 더욱 어디
서 본 듯하였다. 야광필라멘트가 나뭇가지 전체를 감싸고 나서야 이 나뭇가
지가 무엇과 오버랩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표면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이루는 혈관의 이미지였다. 본인은 바로 알 수 없었지만, 나뭇가지에서 자연
과 분리되어 희미해져가는 신성을 느꼈다. 본인은 신성을 포착한 나뭇가지
에 야광 필라멘트를 감싸 자연 오브제의 형태를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나무
에서 단절되어 죽은 나뭇가지가 아닌 살아서 서있는 것처럼 전시 공간 공중
에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제작 및 설치 방식과 인공물인 야광 필라멘트가
가진 그리고 색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초월적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이
초월적 이미지는 나무를 감싼 야광 필라멘트(PLA)가 발광하면서 <출애굽
기>에서 모세가 신의 임재를 경험했던 ‘떨기나무’의 이미지와 겹쳐진다.



【작품6】 불을 꺼세요.

【작품6】 불을 켜세요.

연도 : 2019

크기 : 95×140×50(cm)

재료 : 초, 나뭇가지, 화분, 돌

제작방법

1. 가지가 많은 나뭇가지를 찾아 가지의 일부를 잘라낸다.
2. 화분에 흙과 돌을 채우고 나뭇가지를 꽂는다.
3. 분재된 나뭇가지 윗부분에 다양한 양초를 붙여준다.
4. 나뭇가지에 접합된 양초에 불을 켜준다.

작품설명

본 작업은 꺼져서는 안 되는 등잔대, 불을 켜 채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성경 속 등잔대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레위기> 24장을 보면 계속해서 켜 둔 등잔불이 등장한다. 이스라엘에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임무들이 주어진다. 그들에게 맡겨진 것 중 하나가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잔불을 계속 켜두는 것 이었다. 기름을 태우며 타는 등잔불은 등잔대 안에 기름이 사라지면 꺼지게 된다. 이 등잔대의 불을 계속 켜둔다는 것은 제사장의 모든 시간을 불을 지키는데 쏟는 것 이다. <불을 켜세요.>는 자연과 분리된 자연 오브제인 나뭇가지를 마치 살아있는 자연물처럼 분재하였고, 자연과 분리되어 신성을 잃어버린 인공물을 혼성하여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를 재현하였다. 신성이 깃든 등잔

불을 재현한 <불을 켜세요.>의 양초에 불을 켤 때 잃어버린 신성이 회복됨을 표현하였다. 마치 먼 옛날, 저기 먼 땅에 살았던 제사장들이 항상 켜두었던 등잔불처럼 신성이 깃든 불을 켜고자 하였다.



【작품7】 하프의 숨

【작품7】 하프의 숨

연도 : 2019

크기 : 33×52.5×7(cm), 00:02:00

재료 : 자작나무 합판, PLA, Audio Recording Sound

제작방법

1. 제작하려는 하프 형태를 위해 일러스트 파일을 만든다.
2. CNC 기계로 합판을 하프 형태로 자른다.
3. 목공 본드로 컷팅된 하프를 형태에 맞게 붙여준다.
4. 하프 형태를 샌딩하여 밀도를 올려준다.
5. 샌딩된 하프에 필라멘트 줄로 6개의 현을 만들어 준다.
6. 전시장에 벽돌과 좌대를 놓고 그 위에 하프를 올려준다.
7. 호흡하는 소리를 녹음하고 하프 밑에 스피커를 놓아 소리를 재생한다.

작품설명

본 작품은 <시편> 137장 2절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생활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한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에 슬퍼하였고 <시편> 137장의 시를 기록하였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는 슬픔의 표현이다. 성경에서 하프는 신을 찬양하는 기쁨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포로생활로 슬픔과 절망에 사는 이들이 어떻게 기쁨의 하프를 연주하며 노래할 수 있겠는가? 본인은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이 걸어둔 슬픔의 하프처럼 우리에게

도 나무에 걸려 연주되지 않는 하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본인에게 나무에 걸려 잊혀진 하프는 우리에게서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어진 숨겨진 신성을 의미한다. 본인은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인 하프를 재현함으로 자연과 단절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이 잊었던 신성을 찾아주고자 하였다. 본인은 벽돌과 좌대로 제단을 만들었고 호흡 소리를 녹음하여 하프 밑에 스피커를 두어 출력함으로 마치 하프가 숨을 쉬듯이 구현하였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하프를 살아 있는 자연처럼 재현함으로 신성을 회복시키고 신과 인간이 소통하는 제단 위에 나무에 걸렸던 하프를 올려둠으로 신성과 다시 연결됨을 보여준다.



【작품8】 나뭇가지 시리즈 가. 나무(無):접(接)



【작품8】 나뭇가지 시리즈 가. 나무(無):접(接)

【작품8】 나뭇가지 시리즈 가. 나무(無):접(接)

연도 : 2017

크기 : 200×2210×220(cm), 가변설치

재료 : 나무젓가락, 고무줄, 나무

제작방법

1. 나무 기둥과 다양한 나뭇가지들을 모은다.
2. 밑 등이 되는 통나무 중앙에 구멍을 뚫고 비교적 얇은 나무 기둥을 박는다.
3. 자잘한 소나뭇가지와 나무젓가락을 고무줄로 묶어 서로 연결한다.
4. 3번에서 만든 소나뭇가지와 나무젓가락으로 대나뭇가지를 만든다.
5. 통나무 밑 등에 접합된 비교적 얇은 나무기둥에 구멍을 뚫어 4번에서 만든 대나뭇가지를 박는다.
6. 대나뭇가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반복하여 가지가 풍성한 나무 형태를 만들어주고, 천정에 투명 낚시줄을 연결하여 나무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작품설명

본 작품에서 자연의 모습을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는 통나무 가운데 구멍을 뚫어 가공이 덜한 나무 기둥을 심는다. 그리고 나무 기둥에 작은 나뭇가지들을 붙여준다. 나뭇가지들은 자연 오브제인 소나뭇가지들과 많은 가공을 거친 나무젓가락이라는 인공물을 또 다른 인공물인 고무줄로 묶어서 만들어

준 것이다. 본 작품은 자연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연 오브제인 통나무에서 나뭇가지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공이 많이 된 인공물 순차적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온전한 나무의 형태가 재현되고 탄성을 가진 고무줄로 묶여 유지되는 나뭇가지의 형태에서 긴장감이 발생한다. 자연과 분리된 자연 오브제와 신성을 잃어버린 인공물로 구성된 나무의 모습에는 나무는 없고 자연 오브제에 인공물들이 혼성된(접합된) ‘나무(無)’만이 있다.



【작품9】 나뭇가지 시리즈 나. 틈에서 자라난 나무
나뭇가지 시리즈 다. 틈에서 자라난 버드나무

【작품9】 나뭇가지 시리즈 나. 틈에서 자라난 나무
나뭇가지 시리즈 다. 틈에서 자라난 버드나무

연도 : 나, 다. 2017

크기 : 나. 225×22×195(cm), 가변설치

재료 : 나뭇가지, 나무젓가락, 고무줄, 글루건

제작방법

1. 나, 다. 다양한 나뭇가지들을 모은다.
2. 나, 다. 비교적 두꺼운 나뭇가지와 나무젓가락을 고무줄로 묶어 서로 연결한다.
3. 나, 다. 자잘한 소나뭇가지와 나무젓가락을 고무줄로 묶어 서로 연결한다.
4. 나, 다. 소나뭇가지와 나무젓가락으로 조합된 중나뭇가지들을 두꺼운 나뭇가지에 연결해 대나뭇가지를 만든다.
5. 나, 다. 4번을 통해 만들어진 대나무가지를 벽 틈에 글루건으로 고정하고 천정에 투명 낚시줄을 연결하여 나무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6. 나, 다. 小, 中, 大나뭇가지를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풍성한 나무형태를 재현하여 설치한다.
7. 다. 에서는 버드나무 줄기를 재현한 고무줄을 나뭇가지에 묶어 늘어뜨린다.

작품설명

<나뭇가지 시리즈 나. 틈에서 자라난 나무>, <나뭇가지 시리즈 나. 틈에서 자라난 나무>는 <나뭇가지 시리즈 가, 나무(無):접(接)>과 같은 방식으로 나뭇가지들을 모으고 나무젓가락과 고무줄로 온전한 大나뭇가지 형태를 재현한다. 위 작품들은 나무를 나뭇가지와 나무젓가락, 고무줄의 혼성을 통해 재현했다는 점은 <나뭇가지 시리즈 가, 나무(無):접(接)>와 같으나, 차이점은 하나의 자연물을 재현하여 전시 공간 안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와 혼성되어 하나의 초월적 풍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작품10】 String and string string

【작품10】 String and string string

연도 : 2019

크기 : 330×160×300(cm), 가변설치

재료 : 시멘트벽돌, 나뭇가지, 돌, 나무판,

제작방법

1. 꺾이고 잘린 나뭇가지들과 자연석, 벽돌 등을 모은다.
2. 시멘트벽돌 두 개를 쌓고 벽돌 구멍에 수집한 나뭇가지를 꽂는다.
(<나뭇가지 시리즈 나. 틈에서 자라난 나무>처럼 벽에 설치하기도 한다.)
3. 벽돌에 꽂은 나뭇가지들에 고무줄을 묶는다.
4. 나뭇가지들이 훔 정도로 당겨 벽돌, 자연석, 나무판 등에 묶는다.
5. 전시 공간에 적합한 크기와 양으로 가변 설치한다.

작품설명

이전의 나뭇가지들을 사용한 작업에서는 주로 자연과 분리된 나뭇가지들을 묶어 자연의 형태를 재현했다면, 이 작업은 자연 오브제의 속성과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인공물과 혼성해준다. 자연 오브제인 나뭇가지 끝에 인공물인 고무줄을 묶고 다른 끝은 자연석과 벽돌, 합판에 묶어 메달아 긴장감 있는 관계로 만들어 준다. 이전의 작업에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은 혼성되어 신성이 갖든 특정 이미지를 재현했다면, <String and string string>은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은 각각 개별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풍경 속 사물들은 서로의 속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혼성되어 있다. 이것은 마치 자연 속에서 자연물이 그리고 인공물이 서로 연결된 신성이 깃든 하나의 자연임을 보여준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 본인의 작품으로 구현된 초월적 이미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인은 본인의 작품에서 재현된 신성이 갖는 이미지들을 연구하고 작품에서 혼성되는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나무와 돌과 같은 자연물의 신성이 동양회화를 넘어 서양의 낭만주의회화에서 거대한 자연 풍경 자체에 갖는 신성으로 드러남을 살펴보았다. 자연과 분리된 자연 오브제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세계의 '살', 본질을 잃어버린 인공물의 의미를 살펴보고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을 통해 구현된 초월적 이미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인공적인 재료로 성경 속 포도나무, 버들가지, 불붙은 나무, 하프, 등잔불 등의 신성이 갖는 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신성과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초월적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써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자연과 분리된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을 서로 묶고 매달고 접합하는 방식과 전시공간에서 관객이 인공적 재료로 재현된 자연물 사이로 지나가거나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으로 구현된 초월적 이미지를 통하여 자연 세계와 인공물 그리고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신성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품연구를 통하여 신성이 갖는 자연 이미지에 대한 본인의 관심이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을 혼성시켜 신성과 연결되려는 시도로 전이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하여 자연과 일상의 모든 것들에 신성을 연결하고 신성과 본인을 혼성하려는 본인의 태도를 고찰하였다.

본 논문을 마치며 본인의 작품 세계는 자연에 관련된 이론과 기독교적 상징의 세계인 성경 그리고 자연 오브제와 인공물의 혼성에 관련된 작품으로 설명되어진다. 신성이 갖는 이미지의 표현은 자연과 일상 가운데서 단절되

있던 신성과 자연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자연과 기독교적 상징 그리고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난 혼성의 결과물들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기법과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이 탄생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국내저서》

- 진중권. 『앙겔루스노부스』. 경기도:아트북스, 2013.
- 진중권 『현대미학강의』, 경기도:아트북스.2003.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서울:(주)도서출판 넥서스, 2004.
- 상촌 신희(1566~1628), 『상촌집(象村集)』, <야언(野言)>, 권47-48, 1633.
- 최대형 편역, 『성서 속의 상징 193』, 서울:도서출판 은성, 1991.
- 이원복, 『한국 미의 재발견-회화』, 서울:솔, 2005.
- 강판권, 『세상을 바꾼 나무』, 서울:도서출판다른, 2011.
-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 서울:생명의말씀사, 2006.

《번역서》

- Pascal, 『광세 Pensées』. 이환 옮김, 서울:민음사, 2003.
- 시릴 모라나, 에릭 우댕. 『예술철학 플라톤에서 들뢰즈까지』, 한의정 옮김, 서울:미술문화, 2013.
- 개역개정판 NIV한영해설성경 편찬위원회. 『개역개정 NIV한영해설성경』. 서울:(주)아가페출판사, 2008.
- 대니얼 하이드,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찬영 옮김, 서울:부흥과개혁사, 2012.

《국내외 학술지 및 정기 간행물》

- 손상용,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성의 의미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를 중심으로- The Meaning of Eternity for Human Beings - Focusing on

- Kierkegaard and Nietzsche-」, 『철학사상』, Vol.56, pp. 101-13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5.
- 주성호, 「세잔의 회화와 메를로-퐁티의 철학」, 『철학사상』, Vol.57, pp. 267-299,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5.
 - 손희락, 「애니쉬 카푸어와 볼프강 라이프의 작품에 나타난 철학적 의미」, 『기초조형학연구』, 13권 2호, pp.255-264. 한국기초조형학회, 2012.
 - 황창기, 「성경적_상징주의의_해석원칙」, 『진리와 학문의 세계』, 31 October 2001, Vol.5, pp.7-12
 - 정남희, 김갑숙, 「신화와 종교적 관점에서의 집-나무-사람 상징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미술치료학회, p1069-1087, 2010.
 - 박현희, 『조선시대 괴석도(怪石圖)에 나타난 ‘돌(石)’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조형교육학회, 조형교육 제 58호, p69-98, p.27, 2016.

《기타자료》

-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main_logo_id)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예술사전』, 서울:국립민속박물관, 2015-2016.
- 한국민속예술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 : 음악 <천안삼거리>, 국립민속박물관, 네이버.
- 국립현대미술과 양혜규 소장품 <여성형원주민>, 2010.

ABSTRACT

A Study on Expressing the Restoration of Divinity through Collaboration of Natural and Artificial Objects – On the foundation my work –

Jung, Yeonhee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details the creative process and the researches I have done for my art projects exhibited from 2015 to 2019; it especially studies an art exhibition called *Our Harps ;;;; Take your harp down from the branches of the poplers*, submitted as my master's degree final project. The research focuses on ways to portray relationships between aspects of divinity in nature and Christian symbols so that the collaboration of these two ideas would make the art piece seemingly transcend reality. It describes how relationships between divinity in nature and Christian symbols were expressed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natural and artificial artifacts.

The paper elaborates the details of my creative process, explaining how I sensed the presence of a Creator when gazing into the natural

objects around me. This divine presence in nature had reminded me of Biblical symbols due to my Christian background. Thus, rocks and trees mentioned in the Bible were expressed as symbols of divinity in the art exhibition. Struggles of overcoming my disconnection with God were captured in the exhibition by interweaving divine aspects in nature with Biblical symbols. Then, these ideas were expressed using a mixture of natural and artificial materials. Furthermore, the paper describes how natural and artificial objects in the exhibition were regarded as dead objects that had been pitifully separated from nature. It explains my attempt to restore a sense of divinity to the lifeless objects by mixing the natural and artificial objects to form one art piece. The pursuit of restoring life to the dead objects is tied in with my reflection about the vital connection I have with my Creator.

Overall, this thesis is mainly centered around the research about one art exhibition, *Our Harps ;;;; Take your harp down from the branches of the poplars*, with brief mentions of other projects.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the research purpose and method. The second chapter describe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the styles of expression that were foundational for the art piece. In the second chapter, aspects of divinity in Christian symbols and nature as well as the use of natural and artificial objects are explained. Next, reproduction of divine aspects embedded in nature and the expression of works through the mixture of natural objects and artifacts are described. Then, an analysis of the projects from 2015–2019 is laid out. Finally, chapter three gives a concluding summary with additional detail regarding the directions of this project's future development.